

2014.11.22. 램네프데이 메시지

사무엘상

류광수 목사님

하나님께 하는 것은 언제든지 최고로 해야 한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어제는 모여서 식사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큰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 오늘 총회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큰 응답을 받았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하루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기도와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나는 식당에 가면, 과일 같은 것을 사라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컵을 사라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나는 꼭 산다.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어떤 때는 돈을 많이 주면서 꼭 산다. 왜 그런가? 그 시간도 나에게게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사무엘상 공부다. 사무엘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다. 그 유명한 지도자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다. 1과, 2과는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이고, 3과, 4과는 다윗의 이야기다.

I. 사무엘

서론

사무엘과 다윗의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인가? 어릴 때 벌써 어른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릴 때인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 자, 대부분 램네프가 이것을 정확하게 못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것을 잘 못 찾는가?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1)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알게 된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원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이해된다. 지옥, 천국, 사단이 이해된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이해한 것이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2)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다. 왜냐?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① 여러분이 하는 정시기도는 응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된다. 응답 안 받아도 괜찮다. 정시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이 기도를 늘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기도를 안 누리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늘 틀린 결정을 하게 된다. 어제 받은 중요한 응답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한 것이다. 그게 기도를 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이 시간이, 내가 힘들지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 되겠다 하면, 그 가장 아름다운 꿈을 계속 기도 속에서 꾸는 것이다. 절대 무시 못 한다. 반드시 응답된다. 늘 기도 속에서 그 꿈을 꾼야 한다.

② 그리고 24시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이다. 이것은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③ 25시는 뭔가? 이것은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성령충만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내 수준을 가지고는 중부권에 사는 동안에는 늘 중부권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이 기도다. 이 속에서 어른의 시간표가 나온다는 말이다.

(3) 이 축복 속에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영어로 탠런트다. TV탤런트와 같은 단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어릴 때부터 이게 발견되게 된다. 이 달란트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10% 속에 들어가져야 한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들어가져야 한다. 내가 10% 속에 못 들어가면 달란트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그게 1%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성으로 간다. 복음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한다. 드디어 이 축복이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린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이 축복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다. 램네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다. 사무엘을 가지고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어린 시절과 어른 시절이다. 이 축복을(서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좋았든지 나빴든지 전부 발판이 된다. 가정이 안 좋았다면 더 발판이 된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가정이 안 좋으면 망하는 발판이 된다. 이 축복을 누리면 축복의 발판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될 때, 모든 삶은 길이 된다. 많은 램네프들이 이 행복을 못 누린다. 얼마나 쉽고 행복한 것인데. 게으를수록 더 좋다. 게으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딱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데, 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나. 이런 일들은, 전부 발판이 된다.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길이 된다.

1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삼상3:19)

(1) 사무엘은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었다. 왜 그런가? 집에 자녀가 없어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인물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발판이 된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 새벽기도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발판이다.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인물 속에는 굉장한 계획들이 많이 있다.

(2) 이래 가지고 약속한 대로, 어릴 때 성전에 가게 되었다. 뭔가? 어릴 때 홀로서기를 시작한 것이다. 내 가정이 어려운 것은 홀로서기를 하나님이 빨리 시키는 것이다. 내가 안 좋은 환경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홀로서기를 남보다 빠르게 시키신 것이다. 언약계 옆에서 잠을 잤다고 되어 있다. 내용은 자세히 보라. 이것을 놓치지 마라(서론).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부터 삼상3:19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3) 사무엘이 살았던 가정 배경이 전부 축복이 되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와 브닌나가 갈등을 하기도 했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성전에 와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있지 않나.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굉장히 귀중한 음성을 들었다. 램네프가 꼭 기억해야 한다.

- ① 가정에 일어나는 불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 ② 교회에 일어나는 시험에 속지 마라. 꼭 기억해야 한다.
- ③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시는 시간표다.

램네프는 절대 놓치지 마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참 이상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 하면서도 이것을 못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 해 놓고 교회 가서는 시험에 든다. 예수는 그리스

도라고 해 놓고는 집에 가서는 무너진다. 꼭 기억해야 한다. 램넛트는 기억해야 한다. 미국, 유럽에 이제 제대로 응답받는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램넛트가 일어나면 될 것이다. 거의 기성세대 중에는 없다. 램넛트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에게 모든 있었던 것은 발판이 될 것이다.

2과. 사무엘의 지도자 시절 (삼상16:1-13)

(1)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미스바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전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이다. 사무엘이 지도자일 때 일어난 운동이다. 램넛트운동, RUTC운동, 전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운동이었다.

(2) 어떻게 되었는가? 삼상7:10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 얼마나 큰 힘인가.

(3)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했다. 뭔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냈다.

램넛트, 부모, 교사들은 전체를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솔직히,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엄마들,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우리 전체, 핵심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기도수첩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교회 강단메시지를 매일같이 포럼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응답이 올 것인지 따지지 말고 매일같이 포럼하라.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 부모님들이 안 하니깐, 교회 교사들이 해 줘라. 엄마들이 안 한다. 다른 것은 계속 하는데, 말씀의 흐름에 대한 포럼이 없다. 교사들이 꼭 해 줘라.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이 축복이, 말씀의 흐름이 다윗에게 그대로 흘러갔지 않나. 무엇을 응답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걱정할 게 없다. 어른들도 그렇다. 언제든지 말씀을 타고 가라. 지금부터 말씀을 타고 가라. 아까 서요한 전도사가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맛나 싶은 것이, 말씀을 한두 번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난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따라가야 한다. 나는 제일 걱정이 그것이다.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가 않다. 엄마가 해 주든지 교사가 해 주든지 해 줘야 한다. 지루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대로 승리한다. 램넛트는 꼭 기억하라.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놓쳤다는 말은 예배를 놓쳤다는 말이다. 믿음을, 기도를, 나를, 교회를 놓쳤다는 말이다.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내 존재가 의미가 없다.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왔다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토록 램넛트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고 있다. 깨달아야 한다.

결론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

(1) 앞의 것은 사무엘이 모르고 받은 은혜다.

(2) 그러나 뒤의 것은 알고 받은 은혜다. 감사다.

우리가 모르고 받은 은혜를 나중에 알게 되지 않나? 그것을 보고, 감사라고 한다.

II. 다윗

서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으로 넘어가자. 꼭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이

다. 이때부터 뭐가 오는가 하면, 미리 성공하는 응답이 온다. 미리 응답이 와 버린다. 램네프 일곱 명의 특징이 뭔가?

(1)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미리 응답이 온다.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다. 다윗은 복음과 언약, 이 말씀을 미리 응답받았다.

(2)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미리 응답받았다.

(3) 다윗은 실력과 기능을 미리 응답받았다.

(4) 더 중요한 것은 삼상16:13이다.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다. 그렇지 않나. “이 날 이후로 여호와와 그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고난은 준비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성취다. 왜냐? 미리 응답을 받아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나. 응답을 받아 버리니까, 일어나는 고난은 전부 준비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성취다. 이런 응답으로 끝이 난다.

3과. 다윗의 준비 (삼상17:1-47)

(1) 목동 시절이다. 뭘 했나? 목동 시절에 무슨 준비를 했는가? 영적 준비다.

(2) 목동 시절에 최고의 기능을 준비했다.

(3) 그래서 어릴 때 벌써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 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게 골리앗 사건이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램네프는 놓치면 안 된다. 오늘부터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나온다. 그러면 내 모든 어려움은 발판. 나의 모든 삶은 길.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미리 응답이 와 버린다. 이렇게 된다. 미리 응답이 오든지 성공이 오든지 온다. 그것을 보고 미리 성공했다고 한다.

4과. 다윗의 어린 시절 (삼상18:6-8)

그러면 일어나는 고난은 전부 준비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싹 다 기회가 되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사울을 피해 뱃속으로, 가드로 도망했다. 모압으로, 유다 땅 수풀로 숨기도 했다. 많은 일 가운데 황무지에서 숨기도 했다. 엔게디 굴에 숨기도 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황무지에 숨기도 했다. 심지어 블레셋까지 망명해서 들어갔다. 뭔가? 전부 기회다. 왕을 준비하는 기회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라. 공부를 힘들어하지 마라. 병 된다. 두려워라. 어려움이 닥칠수록, 문제가 올수록 두려워라. 전부 기회다.

(2) 이 힘을 어디에서 다 길렀는가? 시78:70-72, 목동 시절에 다 길렀다. 지금 여러분이 다 기르라는 말이다.

(3)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비밀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인가?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갔다. 사울왕은 악신들린 사람을 찾아갔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 다윗은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갔다. 램네프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다.

결론

그래서 다윗이 뭘 했는가? 굉장한 것을 했다.

(1) 성전 준비다. 언약궤 모실 성전이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2) 전 세계 RUTC.

(3) 앞으로 램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미션 흠.

램넌트 가는 곳마다 성전문화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램넌트가 가는 곳에 RUTC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집은 미션 흠이 될 것이다. 이게 사무엘과 다윗이 받은 축복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포럼해 보라. 금방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승리는 오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램넌트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램넌트들이 말씀 따라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 다윗처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